

광주교육청, 사학 학급 감축 압박 통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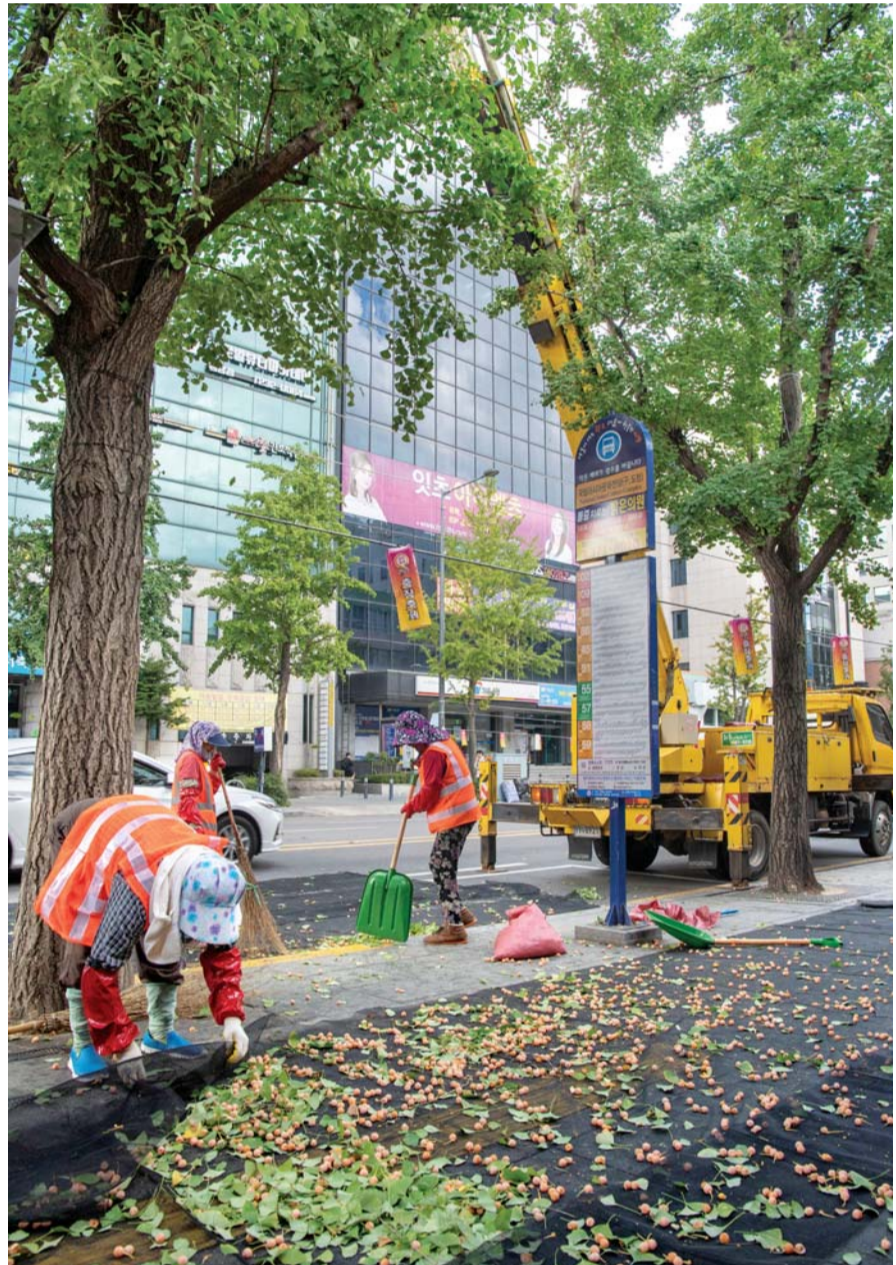
교사 위탁채용 무산되자 '사학 공공성 강화계획' 내내 사학협회 "법적 근거 없고 반감만 키우는 정책"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1일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광주사립학교법인의회의와 중등교원 공동채용(또는 위탁채용) 일괄 합의안 도출이 사학측 반발로 무산되자 '학급수 조정', '법인 경영평가와 연계한 지원금 차등 지급'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거듭 사학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동채용과 연계된 학급수 조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시교육청은 교사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이지만, 사학법인협의회 측 반발로 효과를 얼마나 거둘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이 이날 밝힌 사학 공공성 강화 대책은 총 8가지다. 위탁채용 불참 사학법인 학급수 조정,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

한 인센티브 지급, 5급 행정실장 성과급 교육청 평가, 사무직원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협의체 내부 신설, 공사립 순회교사제 검토,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가 그것이다. 여러 대책 가운데 학급수 조정이 초강수로 꼽힌다. 광주 고교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매년 10~20개 학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 비율, 인건 공립학교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실상 교원 공동채용에 참여하지 않은 사학에 학생 배정을 줄여 결과적으로 학급수를 줄여나가겠다는 게 시교육청 방침이다. 통상 학급을 2개 줄이면 교사 정원

가량 감소하는 등 학교 규모가 쪼그라들게 돼 사학들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교원 공동채용 참여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개별 법인 입장에선 강한 유인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거둘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과거 법원이 특정 비리사학의 학급수 감축 등을 담은 시교육청의 행정조치에 대해 취소판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우수법인 인센티브 강화도 주요 대책으로 거론된다. 2020년까지 연간 최대 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법인에 대한선 현행 1000만원보다 10배 많은 최대 1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평가 방식 등을 두고 잡음도 예상된다. 개별 사학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의 연합회 성격의 사학법인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학법인협의회와 한 관계자는 "사학법

에 따르면 채용은 개별 사학의 고유권한이다. 무슨 권리로 교육청이 공동채용과 연계해 학급수를 조정하느냐"며 "사학들의 협조를 얻기보다 반감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법인협의회는 앞서 시교육청이 제안한 '사립학교 교사 공동채용'안 일괄 수용을 거부했다. 개별 사학법인이 시교육청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관계 없으나, 전체 사학법인이 교사채용 전반을 시교육청과 함께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1차 필기 시험은 시교육청 주관, 2차 실습평가 시교육청 추천 인사 1명 참여까지는 뜻을 모았으나 최종 면접에 시교육청 추천 인사 1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사학측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올 12월부터 공동채용 전형에 참여하기로 한 6개 사학법인과 함께 중등교사 19명을 채용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악취 제거...가로수 은행열매 조기 수확 1일 광주시 동구청 환경청소과 직원들이 금남로 일대에서 은행나무 열매를 따고 있다. 동구는 가을철 인도에 떨어진 은행 냄새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배려해 열매 조기 수확에 나섰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 산모 병원 도착 시간 서울 13배

10만명당 치료가능한 사망률 서울 44.6명 광주 52.4명 지역간 의료격차 갈수록 심화

전남지역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42분으로 서울(3.1분)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2017년 국민보건조사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와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불충분할뿐더러 그나마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전남 등 분만 취약지(2018년 30개 지역) 산모는 의료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던데 라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의 지역별 차

이도 크게 벌어졌다. 이른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사·도별로 충북이 서울보다 31% 높았고,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의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의료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은 44.6명이지만 충북은 58.5명에 이르고, 서울 강남구는 29.6명에 그쳤지만 경북 영양군은 107.8명에 달했다. 광주는 52.4명, 전남은 54명이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서울은 28.3명인데 비해 경남은 45.3명에 달하는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가 심했다. 어린이 중증질환 전문병원과 재활치료 전문기관 등으로 지정된 어린이 공공전문치료센터는 7개 중 3개가 서울에 있는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채희종 기자 chae@

광주 스쿨미투 여고 교사 19명 모두 검찰 송치

광주 모 여자고등학교 '스쿨미투' 가해 교사 19명 모두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남부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성추행·성희롱)를 받고 있는 광주 모 여고 교사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교사는 총 19명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11명 중 2명은 180여명의

피해학생 조사과정에서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돼 사전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제자들을 추행하거나 희롱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아직까지 진술을 하지 않은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교사 등이 거론될 경우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8 달뜨기 23:37
해질 18:16 달짐 13:16

출근길 제법 쌀쌀해요
고기압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맑음	13/23	보성	맑음	10/22
목포	맑음	16/23	순천	맑음	13/24
여수	맑음	15/22	영광	맑음	14/23
나주	맑음	12/23	진도	맑음	11/23
완도	맑음	15/23	전주	맑음	10/22
구례	맑음	10/23	군산	맑음	12/22
강진	맑음	11/23	남원	맑음	10/22
해남	맑음	11/23	흑산도	맑음	18/22
장성	맑음	11/2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0
	먼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5~3.0	북서~북	1.0~2.0
	먼바다(서)	북서~북	1.5~3.0	북서~북	1.0~2.0

◇생활지수

관심	☁
높음	☀
중음	☁
낮음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11:52	06:43	19:37	00:59
	20:24	14:12		

◇주간 날씨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	☀	☀	☁	☁	☀	☀
12/24	12/24	13/25	17/25	17/23	15/24	12/23

기온 뚝... 주말까지 강한 바람 불고 쌀쌀한 날씨

당분간 광주·전남지역에 찬 북서풍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까지 중국 북부지역에서 찬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이며, 날씨는 대체로 맑겠다"고 1일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주 광주·전남 기온이 평년(아침 최저기온10~16도, 낮 최고기온 22~24)보다 2도 가까이 낮고 강한 바람

이 불면서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5일까지 가끔 구름이 끼는 비교적 청명한 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찬 공기 유입과 함께 아침에는 복사냉각에 의해 최저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부터 아동·75세 이상 노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어린이와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일부터 생후 6개월~만 12세(2006년 1월 1일~2018년 8월 31일 출생) 아동과 만 75세 이상(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접종 초기 혼잡방지와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만 65~74세(1953년 이

전 출생자)에 대한 무료접종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만 50~64세 이하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지난 8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무료접종 대상 어린이는 광주 17만 4185명, 전남 18만 7000여명 등 총 36만 1185명이다.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노인은 광주 18만 4381명, 전남 42만명이다. /김현영 기자 young@

대원여행사와 함께 떠나는 가을단풍 여행

문의 및 접수 (062) 526-7000

가을 전세열차 상품
*1인 이상 출발합니다

- 정동진일출 · 설악산단풍 기차여행 · 무박 2일 10월 26일(금) **120,000원**
- 제천 청풍호 · 도담삼봉 기차여행 · 당일 11월 03일(토) **85,000원**

정기열차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하세요

- 문경새재(옛길) · 월악산송계계곡 단풍여행 · 당일 10월 20일, 27일, 11월 3일 **95,000원**
- 계룡산 갑사로 가는길 · 공산성 단풍여행 · 당일 10월 6일, 13일, 20일, 27일, 11월 3일 **75,000원**
- 남이섬 자유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110,000원**
- 남해 보리암 · 독일마을 기차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6인부터 매일출발 **67,000원**
- 서천 국립생태원 기차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39,000원**

섬여행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하세요

- 홍도 · 흑산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218,000원~**
- 울릉도 · 독도 여행 · 2박 3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330,000원~**
- 거문도 · 백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00,000원~**
- 백령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85,000원~**
- 대마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70,000원~**

버스여행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하세요

- 인제 자작나무숲&곰배령 트레킹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80,000원~**
- 울산 동해미행 버스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50,000원**
- 고령 고분군 트레킹 · 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25,000원**
- 통영 동피랑 마을 · 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70,000원**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 자세한 사항은 대원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www.daewontour.com